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January 2019



관련 기사 : 17 페이지

contents

리더십칼럼
4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발행인 단신
7 새해 복(福)의 통로가 되세요

안나의 골방
10 찾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터키는 지금
12 터키 구호단체들이 우물로 아프리카 국가에 생명을 불어넣다
14 흑해를 밝히는 하나님의 빛 삼순개신교회 2019년 1월 소식

중동지역의 오늘
17 쿠르디스탄에서의 에르도안 계획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쉬어가는 페이지
20 1974년 그리고 2019년

이슬람 알기
22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2

특집
25 망명신청자 수 10년 동안 2,000% 증가. 누구의 망명을 허락해야 하나?

특별기고
32 터키의 세계를 향한 비전, 그리고 우리

2019년 1월 25일 통권 101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룻, 이은옥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쿠르디스탄에서의 에르도안 계획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17p)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운영이사 김진영선교사 (SWM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SEED 선교회)
김민수목사 (레이크뷰연합교회)
권혁천목사 (상항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간선교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김영하목사 (방주선교교회)
김태형목사 (ANC온누리교회)
김한오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투스선교교회)
손경일목사 (새누리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이진수목사 (뉴비전교회)
장경일목사 (원패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빛나리교회)
홍원기선교사 (VA 올네이션스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순회선교사: 이은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혁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추한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기도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재건남가주교회 (이병상목사, Hawaiian Garden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영진 목사, Colorado Springs, CO)

실크웨이브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길 14
(양재 1동 15-21) 137-888
Tel: 010-9092-5464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양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에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덕계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2019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삶과 가정, 교회, SWM 선교회 위에 계획하신 모든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새해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잘 감당할 새부대가 되게 하소서!
- 터키와 중동 지역에 복음의 문이 계속 더 활짝 열리지게 하소서! 터키와 이집트와 쿠르디스탄과 시리아 및 그 외 중동지역 안에 계속 교회개척과 연합사역의 장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소서!
-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어진 추수밭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보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SWM 재단(Bakif/바크프)이 올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터키에 세워지게 하소서!
- 현재 기도하며 준비하는 4월 아웃리치(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잘 동원되게 하시고, 현지에서 잘 준비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없는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시대 주님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요엘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로 여호와의 군대(겔37:1-10)를 속히 일으키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사62:6-7)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글: 김용훈목사
(SWM 이사장,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

교회가 병이 들어 심하게 아파서 함께 아픔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교회가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교회가 아프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행복의 필수조건입니다. 왜 교회가 병들게 될까요? 비전을 잃으면 병들게 됩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KJV)) (잠 29:18)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되려면 주신 은혜가 고이지 않고 흘러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을 먼저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크리스천과 공동체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행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은혜로 세상을 바꾼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체를 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해서(행 1장)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넘는 지역교회로 성장하면서(행 2장)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퍼져나간 축복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 부흥이 일어나는 결과를 낳고(행 8:4-25) 사마리아에 은혜가 흐르는 과정이 있는 후에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줌으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그 후에 행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비를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고 땅 끝까지 은혜의 복음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펼쳐나가게 한 일들을 28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는 오늘도 계속 역사의 설계자이시며 또한 그 설계를 완성해가시는 하나님에 의하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되려면
주신 은혜가 고이지 않고
흘러 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사는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청사진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가 됨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칭찬받는 성도와 공동체가 됨이 없이 유대 지경으로 은혜가 흐를 수 없었고 유대 지경으로 은혜가 흐름이 없이 땅 끝까지 이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복음화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청사진에 기록한 단계 단계를 충성스럽게 감당함이 없이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우신 지역 사회에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충실함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로 기본에 충실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습니다(행 2:42).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만큼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먼저 채워야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된 사도행전 교회는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행 2:45).

이념이 세상을 바꿀 줄 믿고 젊음을 이념 싸움에 허비한 한 시인이 30년이 지나서 비로써 깨닫게 된 심정을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나쁜 뿌리는 나쁜, 좋은의 어원은 주는”이라는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나쁜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좋은 인생은 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제 대가 지불함 없이 은혜로 받은 것 나누어주는 일에 충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께서 우리에게 이민자, 나그네의 삶의 경험을 주신 것





은 우리 주변의 이민자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노숙자들이 일 주일동안 교회 체육관에서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했을 때 한 노숙자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들의 섬김은 백인들의 섬김과 다른 것 같아요. 당신들의 섬김은 동정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느끼고 품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이민자의 삶에서 다른 섬김이 흘러 나온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된 사도행전 교회는 주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시고 있습니다(행 2:47).

어떻게 하면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세상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한 분이 주신 답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 주세요.’였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항상 무리한 요구를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 세상을 섬긴다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받은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채널이 된다면 칭찬받는 크리스천 그리고 칭찬 받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더 이상 한인들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한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곁으로 다가온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2019년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가 됨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로 기본에 충실합니다. 두번째로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 복(福)의 통로가 되세요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를 향한 축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인사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마음으로 복을 기원하고 있는지요? 저는 '성경적인 복'에 대해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福)이란 무엇입니까?

중국 고전 서경에 다섯 가지 종류의 복이 적혀 있습니다.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후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오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덕을 좋아하여 즐겨 행하는 것,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福)이란 '보일 시(示)'와 '찰 복(福)'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신에게 제물을 향아리에 가득 채워 바치면 신이 미래를 보여주거나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통해 신의 뜻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은 헬라어(Greek)로 'makarios' (μακάριος)인데 영어로 'Blessing' 보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포함된 'Blessed'가 더 적절한 단어이며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 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 'blessed'의 의미는 '스스로 포함된 기쁨이나 만족'(self-contained happiness, contentment)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Heavenly Bliss)을 소유하는 것, 내적인 만족을 갖는 것이 성경적 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Blessed the one who...)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내적인 만족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부정적인 명령 세 가지와 긍정적인 명령 한 가지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명령

1.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 신앙적이 아닌 세상적인 충고와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세상적인 생각, 의견, 충고,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2.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의 행위를 따라하며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명령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꿀과 같이 달아서 풍성한 삶의 내용,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빛과 등불이 되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능력, 권세, 승리의 비결, 진리를 아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 아브라함의 축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답전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모두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답전 6장 7절-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답전 6장 17절-19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2019년 새해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새해 복의 통로가 되세요’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나의 골방 1월의 기도

찾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을 추구해야 함이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도 “나를 알되 힘써서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아가고 찾는 삶은 시간을 드림과 그 만남의 정도의 깊이가 더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만남의 깊이도 더해가면서 더 추구하고, 더 찾아가고, 더 알고 싶은 말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함, 해야 함이 마땅하고, 마음과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동행의 여정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임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분의 임재는 우리와 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주님 뜻을 따라 살려는 의지도 없이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 것으로, 아니면 몇 절의 묵상으로 내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가지 봉사하는 것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루에 30분, 아니면 일주일에 2, 3 시간... 그래도 한국은 새벽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참석하고 개인적인 주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요?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자이를 죽이고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즐거이 가고 있는지요? 정말로 주님의 통치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요?

제 믿음의 여정의 처음은 교회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모님에 의해서였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의무로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된 것은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그 외의 일상에서는 주님을 거의 생각도 안하고 내가 원하는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것, 거룩한 것, 비거룩한 것, 성경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분리, 구별이 내 안에 생기고 착하게는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에 잘 적응해서 살지만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이를 부인하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일 앞에서는 주님의 뜻을 묻곤 하였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마다 올바르게 음성을 들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강권적인 아니 오래 동안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주께서, 불타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갈망과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면서 주님을 구하고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구하고 구하고, 하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행중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쁘든지, 상했든지, 우울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과 눈이 마주치는 진한 사랑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매료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걸어온 시간들이 정석이 아니고, 이제 조금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 매인 삶을 맞으며,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학교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주님과 동행의 아름다운 여정을 걷길 원한다면 정말 정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라> 라고 말해주고 싶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대화함으로 주님을 만나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바쁘면 바쁘대로, 여유가 없으면 여유가 없는대로,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가능한 최선의 시간을 주님과 보내야 합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머물러 대화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도록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말씀과 말씀을 통해 부여하신 주님의 마음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영으로 교제할 때 정말로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과 자주 자주 눈을 맞추고 주님이 부여하신 사랑과 마음을 놓치지 말고 다시 조용히 주앞에 나아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여되기도 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로 이끌려가는지, 단지 일을 위한 만남으로 끝나는지를 결정합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에 어떤 업무나 결재의 필요나 답을 얻기 위해서 나가지 마십시오.

많은 믿는 자들이 중대한 일을 하는데 안정성에 대한 확인과 결정해야 할 상황들,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아뢰고 답을 얻기에 성급해하는데, 주님은 먼저 그냥 존재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당신의 것들을 부여주시길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달라고 구하고 일어서 나가버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가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시간을 보내주길 원하시나요? 돈만 갖다주길 원하는가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당신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일만하고 있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대화의 주제가 당신에 대한 것이나 사랑하는 상대방에 상관없이 일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과 사랑도 너무나 실제적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같이 보배를 찾으라고 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주님이 우리의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그 보화를 찾고 캐내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존귀케 되고, 보화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잠 2:4) 이는 그들로 모든 풍성함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2:2-3)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욘 22:24-25)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 (계 3:18)



터키 구호단체들이 우물로 아프리카 국가에 생명을 불어넣다

글 : Daily Sabah,
이stanbul(10/24/2018)
번역: 한국번역팀



터키 종교재단이 설치한 우물과 연결된 수도에서 물을 채우는 아프리카 사람들

국무부 종교 업무 협의회와 연결된 자선 단체인 터키 종교재단(TDV)은 최근 "생명의 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토고 등 아프리카 3개국에 17개 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3개국 외에도 이 재단은 12개 아프리카 국가에 수십 개의 우물을 설치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15개 국가의 빈곤한 지역 사회에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의 중앙에 설치된 우물은 주민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가축 사육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곳에서 가축 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세계에서, 터키 자선 단체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 전역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10개의 터키 자선 단체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800개 이상의 우물을 세웠습니다.

인도주의 구호 기금 (IHH)은 30개국에서 3,400개의 우물을 설치했으며 잔수유 구호재단은 13개국에서 1270개 이상의 우물을 여는 한편 아르드멜리 국제구호 국제 재단은 7개 국가에서 1,100개 이상의 우물을 뚫으며 선행 구호재단은 17개국에 872개의 우물을 뚫었습니다.

터키 협력 조정기구(TIKA)는 5년 만에 500개 이상의 우물을 가동시켰으며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수단, 캄보디아, 니제르, 튀니지에서도 이들은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 비옥한 토양을 위한 물과 함께 몇 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했습니다.

터키 적월사는 가자 지구에서 6건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가자 지구 물 재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0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터키종교재단 TDV는 경제적인 어려움, 혹독한 기후 조건, 물 부족 또는 추출 방법의 결여로 청정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우물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우물은 전기와 태양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는 반면, 물은 전기 펌프로 가동되고 사람들은 도정 장치를 통해 물을 사용합니다. 지하수 우물은 약 120 미터의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깨끗한 식수 수요를 평균 20 ~ 30년 동안 충족시킬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의 물 보유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1인당 물 소비량이 10리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이용하려면 최대 6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및 위생 문제 외에도 물 부족으로 인해 교육에 간접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가족을 위해 물을 가져오는 일을 담당하며, 개울과 연못에서 물을 찾기 위해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원에서 가져온 더러운 물은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일으킵니다.

출처 : <https://www.dailysabah.com/turkey/2018/10/24/turkish-charity-brings-life-to-african-countries-with-water-wells/amp>





흑해를 밝히는 하나님의 빛 삼순개신교회 2019년 1월 소식

글: 오르한 피차클랄
번역: 금향로 편집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터키의 흑해지역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다가 한 장의 사진을 찾았는데 2006년 부활절 예배 사진이었습니다. 그 때는 약 20명 정도가 모여 예배했네요.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한 6명의 목회자 팀과 6 ~ 7명은 방문자들이고 그와 비슷한 숫자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온 세상의 아주 조그만 이 곳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이 흑해 지역에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뿌려 놓은 기도의 씨앗들은 남았고 그 분들은 이 곳에서 쫓겨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목회자로서 이 땅을 기경하고 축복해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지금 이 땅에는 놀라운 결실이 맺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삼순 지역에서 4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도시들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다른 교회와 연결되어 믿음을 지키고 또 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는 오르두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교회가 시놉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놉에서 매주 모이는 모임이 시작되어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삼순교회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진(9)





사진(10)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흑해 지역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9)와 (10)은 시놉의 성도들 중에 몇 분입니다. 시놉 성도 중에 한 분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놉시는 아주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기독교 국가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시놉 주민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놉에 좀 더 넓은 공간을 빌려서 오르두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삼순교회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젊은이 중에 텐젤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오르두에 거처를 얻어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두의 터키인들을 위한 터키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순에서 저를 돕던 형제를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는 것은 저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텐젤을 오르두로 파송한 후에 오누르라는 청년이 삼순에 와서 저를 도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오누르는 겸손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텐젤이 떠난 후에 저를 도와 삼순교회를 목회할 귀한 청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누르 청년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저희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누르 청년이 시놉의 교회를 담당할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역자님, 약 1년 전에 저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기도부탁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터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으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만큼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압니다. 32세인 오누르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로 잘 성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열방을 향해 나가는 명령에 순종하도록 자랄 때까지 그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저희 교회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를 피난처로 사용하십니다. 저희들은 예수께 가족 중에 혼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주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진 (11)과 (12)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인 가족인데 이 가족은 아주 조



사진(11)





사진(12)

용히 저희 교회에만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가족은 앞으로 나와서 그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신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는데 이번 6월에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이 가족들 처럼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흑해지역의 난민들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들을 난민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난민들을 통해 터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셔서 이 난민들을 섬기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터키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난민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설교와 예배를 인터넷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저희들이 영상설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 동역자님 중에 2006년부터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작은 공동체가 성장해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향한 여러분의 오랜 지원과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여러분께서 저희를 향한 한번의 기도와 적은 물질까지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된 오르한 드림





쿠르디스탄에서의 에르도안 계획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글: 파젤 하라미

(알-모니터, 이라크 펄스 1/16/2019)

번역: 한국번역팀



네치르반 바르자니(Nechirvan Barzani)가 쿠르드 지역 정부의 이라크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은 터키가 새로운 쿠르디스탄KRG 내각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동맹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로이터통신/ 카디르 바리스

2014년 10월 29일 터키 남동부 실로피 마을 근처, 터키와 이라크를 분리하는 허부르 국경에서 쿠르디스탄의 페쉬르메가 차량을 호송하는 터키 군대 앞에서 한 남성이 쿠르드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약 10년 동안 이라크의 에르빌과 도후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 민주당(Kurdistan Democratic Party, KDP)은 무역, 에너지 및 안보에 관해 터키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오프닝의 주 건축가는 KDP의 네치르반였다.

쿠르드 민주당은 다른 이라크 쿠르드족 단체들과는 달리 1990년대 이래로 터키가 PKK를 감시하기 위해 다수의 군사 기지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쿠르드족 노동당(PKK) 게릴라 운동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쿠르드 지역 총리로 서 일해온 바르자니(Barzani) 총리는 다음 KRG 내각 구성을 위해 KDP에 의해 지명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에르도안은 2014년에 바르자니와 50년간 비밀리에 에너지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쿠르드 민주당은 에르도안의 중요한 파트너였다. 그는 지난달 베르사니에 관한 뉴스가 발생하여 카라카스에서 전화를 걸어 에르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에 베네수엘라에 있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에르도안은 우려했다. "네치르반이 에르도안에게 변경 사항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게 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렸습니다"라고 한 소식통이 알-모니터에게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에르도안이 바르자니에게 직접 "당신은 변화에 행복합니까?"라고 물었다고 했다. 바르자니가 그의 사촌인 마수르르 바르자니를 총리로 지명하기로 결정한 것은 에르도안에게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외교관들과 쿠르드 민주당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전환이 쉽지 않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다. 강력한 바르자니 가족의 변화는 단순히 가문의 일일뿐만 아니라 터키와 이란이 긴밀히 지켜보고 있는 지역적 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의 쿠르드족 문제는 에르도안의 머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터키는 현재 쿠르드족 4개 지역, 이란, 터키, 이라크, 시리아에서 쿠르드족과 싸우고 있다. 여러 차례, 터키 전투기가 최근 몇 년 동안 테헤란의 목인이라 이란 국경 근처에서 이란 정부와 싸우는 PKK와 관련된 게릴라 단체인 쿠르디스탄 프리 라이프파티(PJAK)의 전투원들을 폭격했다고 PJAK는 말한다. 터키 보안군은 터키의 남동부 지역에서 PKK와 싸우고 이라크 쿠르디스탄 국경을 넘어 PKK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수십개의 기지들을 건설했다.

터키는 작년에 시리아 아프린의 쿠르드족 영토를 침범했으며 터키 외무 장관 메블뤼트 차부쇼올루는 1월 10일 터키가 미국의 철수 여부에 관계없이 시리아 쿠르드족을 공격 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인들을 공격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경제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터키는 워싱턴과 다른 서방 수도의 로비 활동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써야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자치 통치제가 실현되는 쿠르디스탄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 1992년 이래로 터키는 PKK 전사들이 국경을 넘어 터키에 진입하여 터키 보안군과 쿠르드족의 협력자들을 공격하는 이라크 쿠르드인들로 인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통치 초기 10년 동안 터키는 쿠르드족 페쉬메르가 이라크 쿠르드족 산맥의 PKK 전투원들과의 싸움에 나섰다. 여전히 쿠르디스탄의 쿠르드인들은 국제 사회와의 연계와 연결이 더 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시리아 쿠르드족 문제는 에르도안에게 큰 골칫거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쿠르디스탄의 애국 동맹(PUK)의 구역인 술레이마니아 지역에서 PKK의 활동을 포함한다. 2017년 8월, PKK가 술레이마니아 근처에서 터키 정보 기관의 고위 관리 2명을 납치한 이후, 양카라는 PKK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PUK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 터키는 또한 2017년 9월 이라크 쿠르드 독립 투표 이후에 시작된 술레이마니아 공항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양카라는 바르자니의 쿠르드 민주당 통제 지역과 달리 쿠르디스탄 애국 동맹 통제 지역





에는 일관된 규칙이 없다고 말한다. 터키 외교관은 알-모니터에게 PKK가 그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공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터키 외교관은 알-모니터에게 익명을 요구하면서 주요 장애물은 "술레이마니아의 안전한 주택에서 벌어지는 산에 새로운 신병을 지원하고 파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애국 동맹(PUK)은 PKK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 술레이마니아의 PKK와 가까운 그룹에 속한 수십명의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었다.

터키는 PUK의 수석 멤버인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의 최근 방문에 이어 이달 말 술레이마니아행 항공편 이용을 금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키는 쿠르드 민주당 통제 지역의 PKK 활동과 굴렌 교육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2년전까지 쿠르디스탄에서 활동한 굴렌 운동의 한 관리자는 "KRG가 모든 기관을 인수했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에 대한 에르도안의 공포가 쿠르드족의 삶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전역의 반대파들을 강타하여 과격파로 몰아 넣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터키 내에서의 표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터키는 쿠르드 문제에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로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PKK는 강력한 초국적 무장 단체이며 PUMA로부터 술레이마니아 지역의 활동과 활동가들에 대한 추가 압력으로 인해 술레이마니아 지역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룹이 반응할 수 있다.

차기 쿠르디스탄 정부의 결성에 관해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에르도안의 동맹국인 네치르반 바르자니 쿠르디스탄 대통령은 총리보다 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KRG 총리에 지명됐다. 그와 그의 사촌인 마스르르 바르자니가 어떻게 힘을 공유할지에 대한 명확한 징후는 없다.



파젤 화라미는 현재 이라크 쿠르드족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언론인이다.
트위터 : @FazelHawramy

더 많은 기사를 원하시면:
<http://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9/01/iraq-kurdistan-nechirvan-barzani-turkey-erdogan.html#ixzz5dCg8p8Eu>



1974년 그리고 2019년



글: 이세웅 편집인
simonlee@silkwavemission.com

1974년 한국 기독교 방송국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안식의 항구(Haven of Rest)” 미국 남성 4중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당시 한국 교회에는 기존 찬송가와와는 또 다른 영어권에서 나온 현대적 감각을 가진 복음성가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아세아 방송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교회에서 기타와 드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란이 많았고 가스펠송을 사용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간의 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새로운 찬양이 주는 신선함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을 따라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안식의 항구 남성 4중창단의 멤버들은 클래식 성악가들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다가 안식의 항구 사역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성으로 청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을 하였다. 안식의 항구 중창단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던 젊은이들도 많이 생겨났다.

그 후 약 30년이 지난 2000년 초에 미국의 한 공연에 초청된 한국 CCM 사역자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지난 10년 이상을 한국에서는 알려진 CCM 가수로 활동하였던 분이어서 전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 셈이다. “저희들은 총알받이예요.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도 저작권을 받기가 어렵고 제가 만든 곡은 많이 불리고 음원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의 삶은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집회에 초청받아 가도 믿음으로 봉사하라는 교회와 모임들이 너무 많지요. 미국에서는 CCM이 미국 4대 음악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저는 10년 이상을 작곡, 작사 그리고 직접 찬양하는 CCM 가수로 활동하지만 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교회나 집회에 초청을 받아 가면 목사님이냐고 묻는데 아니라고 하면 앉는 자리도 다르고 받는 사례비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CM 가수들 중에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CCM 분야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의 패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식있는 결정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나 오페라 공연을 보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

선교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 1974년 로잔대회에서 빌리 그래함, 존 스토틀 그리고 랄프 윈터 등의 지도자들이 추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의 성취에 대한 부담과 실제에 대한 연구와 도전이 있었다. 전 세계에 있는 24,000 종족 중에 절반인 12,000 종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기쁨의 소식도 있었다. 그러나 남아 있는 12,000 종족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



파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 이 미전도종족을 위해 기도하지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도전이 있었다. 특히 남아 있는 12,000 미전도종족은 북위 10/40 창에 집중되어 있으니 북위 10/40 창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 로잔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이제 그로부터 약 44년이 지났다.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얼마이며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발표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보고 되고 있다. 조슈아 프로젝트 단체는 현재 전세계의 종족 숫자를 17,019로 보고 있고 남아 있는 종족의 숫자를 7,066 으로 보고 있다. (Joshua Project, <https://joshuaproject.net/>)

하지만 FTT 선교회(Finishing the Task)에서는 500명 이상의 종족 단위 중에 그 조상들이 살던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 중의 미전도 종족은 343 종족이라는 발표도 내어 놓고 있다. (<https://www.finishingthetask.com/uupgs.php?sort=Country>)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 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는 기독교 공동체 특히 지역교회의 마음이라 생각된다.

랄프 윈터 박사가 1973년에 시작한 FMF(Frontier Mission Fellowship) 선교회가 Frontier Venture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45년간 세계 선교를 전략적으로 이끌고 있다. 2009년 랄프 윈터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Frontier Venture 선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동역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FMF 선교회의 사역 중에 세계 기도 다이제스트(GPD: Global Prayer Digest <http://www.globalprayerdigest.org/>)가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 매월 미전도종족의 정보를 정리해서 30일 기도로 만들어 웹사이트와 인쇄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13명의 연구가와 필진들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특히 편집장을 맡아 지난 32년간 수고한 키이스 캐리 사역자(Keith Carey)는 2019년의 한가지 중요한 동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조슈아 프로젝트는 미전도종족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제공하는 형태가 숫자와 딱딱한 정보의 나열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글을 쓰는 사역자들이 조슈아 프로젝트 안에 없기 때문이다.

또 세계 기도 다이제스트 GPD는 지난 40년동안 미전도종족을 찾아 연구하고 기도자들이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 만들어서 매달 제공해 왔지만, 그 미전도종족이 어디 있으며 또 실제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찾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두 단체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놀라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수 많은 정보를 가진 조슈아 프로젝트는 미전도종족의 구체적인 정보를 GPD에 제공하고 GPD는 그 정보를 글로 써서 조슈아 프로젝트와 공유하며 중보기도자들과 선교공동체와 나누는 동역을 하게 된 것이다.

두 단체는 백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선정해서 2019년 6월1일부터 약 400일간 매일 한 종족을 소개하면서 400개의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SWM 선교회에서는 한국어 동역자로 참여하여 이 400개의 미전도종족을 위한 매일 기도 정보 GPD를 한국어로 준비하고 있다. 영어 콘텐츠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기도 네트워크에 알리며, 또 참여하는 지역교회와 기도단체 그리고 개인기도자들과 함께 연합기도운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우리의 것이 되며 속히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슬람 알기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2

글: 말릭 이브라힘 (COMMA 소식지 2018년 6월)

번역: 한국번역팀

들어가는 글

- "이슬람 알기"를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첫 글로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1, 2, 3)"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세션을 통해 이슬람을 이해하고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열리고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1은 2018년 11월 금향로가 차기까지에 소개하였고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2는 이번호에 소개한다.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3 (마지막 글)은 2월호에 수록할 예정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무슬림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향로 편집인)

이 시리즈의 1부에서는 세속주의자와 전통주의자 이슬람교도가 무함마드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기 2부에서는 이디 하디스트/모더니스트와 민속 무슬림의 범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디 하디스트 / 모더니스트

민속 무슬림들 이디 하디스트 / 모더니스트는 현대 사회에서 한 장소를 찾기 위해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이슬람교 해석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이슬람교도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슬람교를 원합니다.¹⁰ "굴렌 운동의 한 부분인 두 명의 무슬림이 이 섹션을 위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¹¹ 이 운동의 지도자 인 페트홀라 굴렌은 전세계 이슬람교도들 사이에서 이디 하디스트를 재공개하거나 독립적인 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섹션을 위해 인터뷰 한 최초의 무슬림 남성은 본인이 직접 인

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다른 모든 예언자보다 우뚝 서서 이 무슬림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무함마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평화가 그의 위에"라는 문구가 따라야합니다.

굴렌이 예언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존경의 몸동작 - 예를 들어 그가 만약 앉아 있을 때 무함마드의 이름을 들으면 그는 일어서는 것 같은 - 동작을 취합니다. 이 무슬림 남성은 한 무슬림은 이미 죽은 그들의 선조를 위해 선행이 전해지도록 기도한다고 설명을 계속했다. 이 기도에서 언급된 첫 번째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예언자 무함마드는 인간의 완전한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순나에 기록된 예언자의 전통은 모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메키를 향한 오른쪽에서 자고, 앉고 앉아 예식을 마시거나 먹기 전에 비스밀라를 발음하는 동안 3회의

주사위를 던지면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방 중에 어떤 것은 신과 한 무슬림과의 특별한 은총을 얻는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에서 나온 수염 털과 의복과 같은 많은 유물이 이슬람 국가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옷들은 무함마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황금 상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남성이 말했듯이, 예언자 무함마드는 사랑하는 친척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그것들을 만지고 입맞춥니다. 이디 하디스트/모더니스트의 범주에 속한 두 번째 무슬림 남성은 무함마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 간단한 이메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최고의 인간이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함마드는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을 배웠고, 존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라고 썼습니다.

이슬람교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범주는 바로 민속 무슬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도들은 정령 숭배와 마법과 종교 관행을 혼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천사들, 진(jinn)과 악마들에 의해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 이슬람교도의 80% 이상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⁶¹ "이 섹션에서는 민속 이슬람교 배경의 두 명의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남아시아 출신의 한 MBB여성이 무함마드를 무슬림으로 여긴다는 질문에 이메일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의 성장이 그녀의 종교적인 일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를 꾸란을 쓰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예언자로 여겼지만 알라가 그녀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녀는 성장하는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슬람 예언자와 성자들의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이 신전에서 그녀는 그들에게 키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가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방문한 신전의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녀가 무함마드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여기는 지에 대

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 MBB는 무함마드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썼다. 그녀는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무함마드가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다른 인간처럼 잃어 버렸음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이메일을 끝냈습니다.

민속 무슬림 범주에서 인터뷰 한 두 번째 사람은 서 아프리카에서 온 MBB였다. 그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정령 숭배와 이슬람 신앙을 혼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무슬림으로서의 그의 삶에서 이 MBB는 무함마드를 모든 사람의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모욕적인 모욕에 감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자신의 명성을 옹호했지만 그가 무슬림이었을 때 예언자 무함마드와의 가족 관계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무함마드를 거짓 선지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함마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함마드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잘못된 인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함마드에게 그가 이람인을 위한 예언자라고 확신했다고 믿습니다.

결론

이 시리즈의 두 부분의 인터뷰를 요약하면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해 전통주의자들과 이디 하디스트/모더니스트들 사이에서 특히 구체화 된 핵심 단어는 "모방"이었습니다. 무슬림의 이 두 그룹은 무함마드의 삶이 모든 사회의 모든 인간 존재와 모든 시대의 모방을 위해 신께 완전히 복종한 완전한 본보기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가 개인적인 정체성의 일부라고 느꼈으므로 무함마드에 대한 모욕은 그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전통주의자들과 이디하디스트/모더니스트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선지자를 위한 애정에 대한 표현에 있었습니다. 이디 하디스트/모더니스트들은 종종 무함마드를 언급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했으며 심지어 아버지와 같은 사랑하는 친척

과 같은 가족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높은 존경심은 보수적인 무슬림들 사이에서 분명했지만, 애정의 말은 절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세속주의와 민속 부문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범주들에 대해 인터뷰한 사람들은 무함마드가 무슬림으로서의 종교 생활의 초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직접 가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인 MBB와 관련하여 4명 모두가 무함마드가 거짓 선지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4명 중 3명은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은 심지어 무함마드가 죽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았겠다고 공감했습니다. 위의 인터뷰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몇 가지 유사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으며 모든 면에서 모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과 주인으로 보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롬 10 : 9). 그러

나 우리가 예수를 모방하고 모방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일차적인 초점은 우리의 마음과 품성이 그와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막 12:30, 롬 12 : 2, 빌 2 : 5).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모방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행하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녀들의 마음에서 흘러 나와 우리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고 세상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요 13 : 34 & 35, 17 : 20 & 21 & 롬 8 : 15-17).

무슬림이 예수를 신뢰하는 이유에 관해 자주 언급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을 목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슬람교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한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 1:12)

금향로 2월호에는 무함마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헌신 3(결론)이 게재됩니다.

-
- [1] 현대 세계에서 이슬람교도의 유형에서 가져온 것 : 이슬람의 수많은 목소리
<http://commanetwork.com/types-of-muslims-in-the-modern-world-the-many-voices-of-islam/>(accessed 2018년 4월 30일)
 - [2] 쿨렌 운동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kulrenmovement.com/about-us> (accessed 2018년 4월 30일)
 - [3] 마이크 얼튼, "쿨렌의 마음에 감동 : 운동에 도달하기 위한 복음의 길" Missio Nexus
<https://missionexus.org/touching-the-heart-of-kulren-gospel-pathways-for-reaching-the-movement/> (accessed 2018년 4월 30일)
 - [4] Ibid.
 - [5] 이슬람교도가 예수님 께 왜 돌아가는지 이해하면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http://onq.qplace.com/2016/12/how-understanding-why-muslims-turn-to-jesus-can-help-any-believer-share-the-gospel/#.Wuo3r4gvzD4> (accessed 2018년 5월 2일)

망명신청자 수 10년 동안 2,000% 증가. 누구의 망명을 허락해야 하나?

글: 마야 로단

사진: 존 프란시스 피터스(TIME)

번역: 한국번역팀



미 국경 수비대 요원들은 9 월말 새벽 순찰 기간 동안 텍사스 맥칼렌의 길에서 어린이를 포함 43명의 중앙 아메리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한다.

국경 수비대 요원 할만 리베라는 어둠 속에서 무전소리를 듣는다. 리오 그란데 위 제방 도로 부근에 배치된 그의 동료 요원들은 희미한 새벽 미명에 멕시코 국경을 따라 어떤 무리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한다. 첫 햇빛이 지평선을 가로 질러 가면서, 팀은 행동을 취하고, 덩불을 피하고, 이민자를 찾기 위해 줄 지어 있는 가지 덩불 아래로 들어간다. 헬리콥터는 머리위에서 타다다 소리를 낸다.

"여기에 한명 있어" 요원이 사탕수수 줄기가 머리 위까지 올라와 있는 밭에서 소리쳤고 "여기에 2명 있다" 다른 요원이 소리 지른다. 그들은 수갑을 채워 남지들과 함께 나중에 한 줄로 나온다. 다른 곳에서는 요원들이 두꺼운 덩불에 숨어 있는 중국인 3 명과 고테말라 출신 불법이민자 4명을 발견한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달리거나 숨는 것은 아니다. 몇 시간 후, 태양이 정오의 최고봉에 이르자, 리베라는 두 남자가 고무보트로 올라가 미국 해안쪽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을 서서 지켜본다. 이 두 명을 쫓을 필요는 없다. 그들은 활짝 웃으며, 리베라의 트럭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며 둘 다 프레디라는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니카라과에서 왔으며 13 일동안 여행 중이며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언어처럼 안전을 찾아서 집을 떠났다는 간단한 말로 그들은 미국에서 망명을 요청한다.

리베리아와 미국인 이민 시스템을 위해 프레디들은 그날 아침 억류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장을 찾아 국경을 넘거나 가족과 재결합하거나 밀수품을 밀매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대부분의 경우 체포되어 신속한 강제 송환으로 명예 훼손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된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인 프레디와 프레디 같은 가족은 수십년 된 난민법에 따라 공정한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망명 희망자가 급증했다. 2008년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경 관리원에 의해 체포된 5,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망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0년 후, 이 숫자는 97,000건이 넘었으며 거의 2000%가 증가했다. 이 수치는 지난 2년 동안 가족과 비 동반 소아들로 인해 두 배가 되었다.

일부 이민 권리 옹호자들은 중앙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환경 파괴, 갭단 활동 및 정치적 변동성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상승의 이유를 설명한다. 종교적 난민에 의해 설립된 미국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본다. 그들은 난민 지위에 관한 법이 착취 당하고 있으며, 난민 지위에 등록된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뒷문을 통해 국가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억압을 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망명은 의회가 출입국 관리를 통과한 법률을 피해가는 탈출구가 되었다"고 이민 개혁을 지지하는 싱크 탱크 이민 연구 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안 사무 총장은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정책 전쟁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로 큰 변화는 새로 고안된 가족 분리 정책이었다. 6월에 제프 세션스 전 법무부 장관은 폭력 조직 또는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실격시키기 위한 미국의 망명 기준을 좁혔다.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및 애리조나로 수천 명의 현역 군대를 보냈고 그들은 국경까지 걸어서 길을 나서고 있는 많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하여 소위 중앙 아메리카인들의 캐러밴과 대결하도록 명령했다. 11월, 트럼프는 지정된 입국항을 통과하지 않으면 망명 신청에서 90일 동안 모든 이민자를 차단할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이 어떤 종류의 국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더 깊고 불안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익쪽의 이민 강경론자들은 이주자 "침략자"를 제압할 것을 약속하지만, 좌익쪽에 있는 운동가들은 전체를 위협하고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에 대한 언급을 한다. 이런 고함 속에서도 꼭 대답이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국가가 어떻게 대답 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누구에게 망명을 허락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망명을 인도적이며 책임감 있게 거부할 수 있는가?



그녀의 어린 조카딸 옆에 있는 미리암 카스티요는 9월 25일 맥칼렌 강을 건너 국경 관리와 이야기한다. 그들의 그룹 멤버들은 정치적인 동기로 발발한 폭력을 피해 여기에 왔다고 말한다.

당분간, 그러한 질문은 법원과 국경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민자 권리 운동가들은 트럼프의 최신 정책 움직임이 단지 잔인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백악관이 최신 규정 변경을 발표한 다음날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이 주도하는 연합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망명 신청자들을 대신하여 행정부에 대해 부과된 많은 소송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국경 요원들은 계속해서 뒤쫓을 것이다. "벽이나 울타리를 배치하거나 더 많은 헬리콥터를 도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미국을 향하고 달려오고 있다." 국경 수비대의 34년차 베테랑인 리오 그란데 지역 부문장인 마누엘 파디아는 말한다. "이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국경으로부터 리베라 지부까지 짧은 운전 거리를 운전한 후에 국경 수비대는 GPS 트랙킹 발목 팔찌를 착용한 이민자의 행렬을 텍사스 맥칼렌의 비영리 카톨릭 자선 단체가 운영하는 리오 그란데 밸리 인도주의 위탁 센터에 제출한다. 이 지친 이민자 그룹은 두 명의 프레디 가족과 같은 가족 단위로 구성되며 모두 망명을 요청했다.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가 늘어선 국도 안보부라는 단어로 장식된 가방을 움켜 쥐면서 그들은 지난 80년 동안 매우 복잡한 과정을 겪었다.

1940년대까지, 미국은 망명자가 될 수 있는 입국을 허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연방법은 이민자와 망명자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 700만 명이 쫓겨나자 미국 의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8년에 의회는 난민법을 통과 시켰다. 다음 4년 동안 유럽의 35만 명의 난민들에게 미국의 출입국



리오 그란데에서 맥칼렌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9월 25일 국경 요원이 접근하고 있다.



중국과 과테말라 출신 이주 노동자 그룹은 9월 25일 리오 그란데를 통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후 구금되기 전까지 신발을 벗는다.

관리 문을 열었다. 1967년에 미국은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하여 자발적으로 난민 보호를 약속했다.

그러한 협정은 난민을 자신의 나라 밖에 있고 종교, 인종, 국적 또는 특정 사회 또는 정치 집단 구성원에 근거한 박해에 대한 잘 알려진 두려움 때문에 귀국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난민 지위는 헝가리나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을 탈출하거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피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으로 동정적인 그룹에 허점과 예외를 통해 수십년 동안 불공평하게 부여되었다. 의회가 1980년 난민법에 의해 미국에 망명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제도를 만들 때가 아니었다. 유엔 난민 협약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되면 신청자는 미국에서 환영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프레디들과 같은 사람들이 출입국 관리 당국과 대면하게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움을 나타낼 때 종종 시작된다. 훈련된 미국 관리는 두려움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터뷰를 한다. 2018년 회계 연도에 망명 희망자 중 약 89%가 초기 "신뢰할 수 있는 공포" 판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확률은 거기서부터 좁아진다. 망명 신청자에게는 이민 법원에서 사건을 항소할 날짜가 주어지며, 이는 증명해야 할 의무가 높다. 올해 판사들은 이민 법정에서 이민자들이 믿을만한 두려움 인터뷰를 통과한 경우에만 17%의 망명을 허가했다.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망명 신청자는 어떻게 될까? 바로 그곳에서 정치적인 싸움이 실제로 가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두려움 인터뷰를 통과한 후 이민 법원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구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책은 "포획 및 석방"이라고 말하고 있다. 791,821건의 신원 조회로 새로운 법정 날짜는 수개월 또는 수년 이후가 된다. 2018 회계 연도에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민 판사는 신뢰할 수 있는 공포 추천으로 시작된 34,000건이 넘는 사례를 완료했다. 그 중 1/3이 -10,534명의 이민자가 법정 심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민 강경자인 크리스 크리코리안은 망명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악의적인 증거를 보았다. "두려움에 시달리고 망명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 후에

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 년 까지 신뢰할 수 있는 두려움 인터뷰에 응한 이민자의 53%가 실제로 망명 신청을 했다. 그는 또한 망명 신청자 중 일부는 거부 당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자의 이민 사건에 대한 결정없이 180일이 경과하면 이민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된다. 그들은 그들이 거절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거절 결정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그들은 일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국경 순찰 국장으로 일해온 파디아는, 망명 신청자들은 재판 날짜까지 구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명 신청자의 인구는 실제로 커뮤니티에 공개되기 때문에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션스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만들었고, 망명자들의 요구를 추구하면서 이민자를 석방한다는 것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장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10월 트럼프는 폭스 뉴스에게 집에 "텐트 도시" 판사와 마주 칠 때까지 이민자들이 "우리는 텐트를 여기 저기에 세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리오 그란데 벨리 지역은 34개 카운티가 있고 34,000평방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다. 텍사스 주 남동쪽에 약 3000명의 국경 수비대가 소규모로 나뉘어져 순찰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은 다채로운 풍경을 연구하고 추적 기술을 연마하며 조연을 교환함으로써 불법 이민의 흐름에 익숙해졌다. 리베라는 강을 따라 순찰한 후 요원들이 때로 트럭 더미 뒤로 타이어 더미를 끌어 올려 땅을 새로 고침으로써 먼지가 많은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고 말한다. 그는 표면상 조강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서류 미등록 이주민으로 식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국경 수비대 요원의 임무는 절대 끝나지 않는 시지프스 신화 같다. 10월에, 요원들은 남서부 국경에서 50,975명의 불법이주자를 체포했다. 23,121명이 가족 단위였고, 1개월 동안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강경론자들 모두가 이들 모두를 체포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이민 변호사와 옹호자들은 망명 신청자의 장기간 구금이 단순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금이 많은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많은 비용이 든다. 첫째, 미국 시민자유 연맹(ACLU)은 소송에서 망명 희생자의 장기 구금이 2009년 이민 및 관세청(ICE) 지침과 유엔 난민 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망명자를 더 많이 구금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국토 안보부(DHS)에 따르면 이민자



국경 요원이 9월 25일에 멕시코에서 불법적으로 맥칼렌으로 건너온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를 가법게 두드렸다.

가족을 구금하기 위해 평균 1인당 하루에 319달러가 소요된다. 재판 날짜가 길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발목 모니터로 이민자를 풀어주고 사례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은 구금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 이같은 계획을 끝냈다.

옹호론자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망명 신청자들의 장기간 구금이 부도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족으로서 여행한다. 미국인들은 남부 국경에 있는 임시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가난한 가족을 감옥에 가두어 놓는 국가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왜냐하면 미국 안으로 풀려나면, 망명 요청을 시험하기 위해 법원 제도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의 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위기는 2014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 및 가족의 유입이 남부 국경을 넘었을 때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흐름이 증가했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이민 판사와 행정관을 고용할 자금을 늘리는 대신 트럼프와 오바마는 이민 집행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대통

령의 정치적 결점을 쌓았지만 망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거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마이그레이션 정책의 이민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도리스 마이스너는 말한다.

현재 망명 신청자들의 유입을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은 이민 관료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마이스너는 말한다. 미국은 망명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청문회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 그리고 난민 지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발표해야 한다. 마이스너 대법관은 이민 법원이 망명 신청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사건 수량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이민 법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서진 이민 - 사법 제도는 이민자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시스템의 오용을 불러온다.



한 밀매업자가 9월 25일 니카라과인 2명을 보내고 리오 그란데의 멕시코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천 명의 현역 미군 병력을 남부 국경으로 보내는 정치적인 해결책보다는 더 많은 판사와 이민국 공무원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옹호론자들은 인정한다. 이번 달 국경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리벤 이민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5,600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최대 15,000명을 약속했다. 독립 분석그룹인 전략 및 예산 평가 센터는 그러한 노력에는 4천 2백만 달러에서 1억 1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휴먼 라이츠 퍼스트 (Human Rights First)의 난민 보호 담당 선임 이사인 엘레노어 에이서는 이민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은 문제의 근원, 즉 많은 이들이 탈출하는 국가의 빈곤, 폭력 및 불안정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 탄압, 폭력 및 박탈 및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국가를 탈출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떠나게 하는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녀는 일자리, 경제 개발 및 기타 장기적인 대외 원조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리오 그란데 벨리 지역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법원 청문회까지 억류할 것을 촉구하는 장기 근속 국경 요원인 파티야는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사람들이 미국에 가지 못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두 정부 당국 모두에서 이 인구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의 임시 방편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민 개혁은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 해결책이 생길 때까지 리베라 요원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계속하고, 새벽에 덤불을 감시하고, 강독을 견고, 발견한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고 따뜻한 오후 끝에 리베라의 무전이 다시 살아난다.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국경을 넘는 5명의 가족이 잡혔다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망명 신청을 했다. 리베라는 현장에 속도감을 느낀다.

터키의 세계를 향한 비전, 그리고 우리

글: 안순자 (요르단, 전 터키 사역자)

〈들어가는 글〉

지난 2018년 겨울에 이스라엘을 잠시 다녀오면서 예루살렘에서 터키 여행객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행객들은 목적을 가지고 알 약사 모스크를 갔다 오는 것처럼 보였고 저희도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과 터키말로 주고 받으며 다시 터키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자녀를 모든 터키에서 낳고 키우면서, 현재 대통령의 이스탄불 시장 시절 부터 지금의 임기 기간 동안 터키 안에서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고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깨어서 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업적을 뒤돌아 보며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은 1994-98년 까지 이스탄불 시장으로 일했고 그 당시 친 이슬람적인 시를 읽으면서 감옥생활을 잠시 하게 되었고(그 당시는 친 이슬람이 설수 없었음) 2001년 정의개발당(AKP)으로 출마해 총리로 당선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총리로 섬기다가 2014년 최초로 총리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2017년 선거를 통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체제를 바꾸었다.

1993년에 처음 터키에 갔을 때는 여자 총리인 탄수 칠레르와 메수트 울마스 동맹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의외로 자유로운 나라 같았다. 실업율,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은행, 우체국을 갔을 때 조직화 된 것을 찾아 보기 어려웠고, 경제 콘도(철거민 촌)가 수도인 앙카라를 비롯해 곳곳에 즐비 했었다. 그런데 2001년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로 당선 된 이후, 20%의 실업율이 10%로, 국가 GDP는 3배로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줄면서 물가안정을 가져 오고 터키 전역에 사회간접자본을 바꾸고, 도로와 교통 정비, 또 전국 곳곳에 고속 도로와 공원 조성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주류세와 담배 등 소비세를 높이고 그 이익으로 주립대학을 무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페트홀라 굴렌과 비전을 같이 가지고 전 세계 엘리트 학생들을 터키 대학으로 데려와 터키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불 하면서 터키 유학을 장려하기도 했다. 각 대학들 마다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특히 많이 늘었다. 공산권이 무너지고 중앙 아시아에서 장학생을 들여와 터키화하던 것을 아프리카에서 터키화를 꿈꾸는 것 같다.

지금 터키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의로 - 정부 공직자 임명 가능, 국회 해산 가능, 국가 사법 체계에 개입 가능, 국가비상 사태 선포, 중앙은행 정책 간섭, 대법관 15명중 12명 임명 가능 등등으로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 제정,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가지는 균형과 견제를 없애는 술탄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2023년에 완성될 핵발전 연구소와 핵 발전소를 러시아와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스탄불 대운하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완성된 6천만 명 수용 가능한 유럽 최대의 국제 공항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제 3의 보스포러스 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총리 시절 부터 저소득, 저학력 층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대외 집회와 무타르(한국의 통반장 회의)집회를 즐겨 하고 있다. 2014년 대통령 이틀이 연관된 - 이란의 핵발전과 관련해 미국의 이란에 경제 억류로 인해 이란이 석유를 사고 팔 수 없는 것을 이용해 - 터키가 그 중간에 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과 연관해서 1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 스캔들을 지만 신문(페트홀라 굴렌 영향 하에 있는)이 폭로하면서 굴렌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실은 굴렌 조직도 동일하게 저소득층의 자녀들

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주로 법대를 보내서 터키의 세속화 정부를 이슬람 정부로 바꿀 법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하였다. 굴렌주의자들도 실은 전세계의 특별 공립학교를 세워서 평화적인 종교로 이슬람을 강조하면서 터키 사랑을 심어주는 학교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국제법을 알고 그 나라의 법을 이용해 특별 공립학교를 세우고 있다.

2007년 여름에 뉴스 위크에 터키에 관한 글이 있었다. 그해 7월에 에르게네콘이라는 사건이 생겼다. 군부 장성들, 장군들의 부패를 청산하는게 목적이었다. 그 사설에서 육해공군 장관들이 모두 사임하는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2013년 12월 FETO(굴렌주의자 테러조직)라는 이름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페트홀라 굴렌 그룹은 테러 집단이 되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의 꿈을 펼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터키는 앞으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체제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터키는 오스만제국 멸망 이후 합법적으로 1923년 헌법을 준수하는 민주정부로 세워졌고 2023년은 그 민주정부가 100주년을 맞는다. 로잔 불평등 조약 - 100년 동안 소수 민족과 그 사람들의 종교 보장이 그 주류를 이루었던 조약 - 그 100주년이 끝날 때, 오스만 제국의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 대통령의 꿈이다. 이슬람의 종교지도자 칼리프가 그 100여년 전 이스탄불을 떠났다.

터키 현 정부는 2016년 7월 실패한 쿠데타에 승리하므로 실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터키 대통령, 레셉 타이 에르도안은 사리아 법에 근거한 칼리프 정부와 오스만 제국을 가져오는 것을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대통령 국회 연설- 2018년 10월 23일)

터키는 포괄적으로 몇 무슬림 나라를 포함해서 오스만 스타일의 이슬람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가속화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지난 2018년 11월초, 정의 수호를 위한 전략적 연구센터(ASSAM)가 지원한 국제 이슬람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국제 이슬람연맹 의회”에서 그 노력들이 현격히 들어났다. 그 모임의 리더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총군사 자문, 아드난 탄느르베르디인데 그는 은퇴한 친이슬람계 중장이다. 이 모임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무슬림 경제 시장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16억 명의 무슬림들, 1억 9천 제곱미터의 땅,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55.5%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의 64.1% 그리고 천연가스 상품의 33%를 가지고 있는 60개 이슬람국가의 놀라운 역량”을 형성해 내야할 것을 선포했다.

터키의 누르딘 네바티(경제, 부장관)는 무슬림 국가가 어지럽고 괴로운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이슬람 움마공동체의 지도자로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또

이슬람 연방을 형성하는 계획의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적으로 말하면서 “알리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 패배시킬 힘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말했다.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과 연결된 단체 학자로서 자살 폭탄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분이 동일하게 감정적인 말을 했다. “터키는 앞으로 서양에 의해서 이 나라가(터키)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알라가 에르도안 대통령과 그의 형제들을 도와 줄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들이 지지하는 한 승리자로서 떠오를 것을 알라가 도울 것이다. 실은 이집트의 모르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올 때 많은 무슬림 형제단은 터키로 갔다.

2017년 11월에 있었던 첫 ASSAM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이슬람 국가들 연합” 형성을 통해 이슬람의 연합을 옹호했다. ASSAM 모임에는 29개국에서 109개의 비정부단체들이 참석했고 터키에서 70개의 비정부단체들이 참석하여 이 선포를 승인했다. “이슬람국가들은 강력한 한 리더십 밑에서 연합하여 영구적인 실천방안들을 이슬람 국가 의회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 전세계 60개국 이슬람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들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부연해서, 이슬람국가 의회 헌법 초안이 이미 작성되었고 그 수도는 이스탄불로 잠정 결정되었다. 그 헌법은 샤리아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알바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마케도니아 4개국이 유럽의 무슬림국가로 기대되고 있다. 첫 이슬람국가 의회는 결론짓기를 각 이슬람 국가들은 각 국가의 내각에 이슬람연맹 장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ASSAM은 2023년까지 매해 국제 이슬람연맹 의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고 전 무슬림 국가들에게 이슬람 연방 주에 가입할 것을 선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공식 석상 연설에서 “터키는 실제 국경이 있지만 우리 가슴 안에 또 다른 국경이 있다”고 말했다. ASSAM의 다음 모임은 2019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본인들이 표현한 의회의 목적은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문적,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말할길 “시리아, 이라크, 북아프리카, 중동 아니면 발칸 나라로 가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터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터키 구호단체 TIKA가 마케도니아의 산이 많은 지역을 갔을 때 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우리를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는 100년 동안 너희들을 기다려 왔어! 터키 사람은 우리를 식민지 삼은 적도 없고 침략한 적도 없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대량학살 한적도 없어. 그 대신에 우리를 향해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상징적으로 하는 말 ‘충성스런 터키 사람이 여기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손을 놓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렸고 그 사람들의 소망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

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세계는 다섯 개보다 큼니다(유엔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 5개국을 말함).

그리고 터키는 지금 터키공화국보다 큼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780,000 제곱 킬로미터(터키 전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술, 이라크의 키르쿠크, 시리아 알레포와 옴즈의 알-아세카, 리비아의 미스라타, 마케도니아의 스킵제 그리고 러시아와 코카사스의 크림리아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 터키 공화국의 국경 밖에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국경이고 우리 마음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2016년 11월 10일). 그는 또 덧붙여서 말하길, “우리 조상들은 어디를 가든지 번성했고 늘 번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중 유럽으로 부터 아프리카까지 몇 세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에 터키 공화국이 끝나고 칼리프 같은 리더십을 가진 무슬림 국가, 움마를 지향하는 것을 말했다.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가까운 자문 위원들이 이스탄불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슬람의 연합이라는 모임을 가지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2023년 초까지 에르도안 대통령을 리더로 세우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였었다. 이것이 그리 놀랍지 않은 것은, 국제 무슬림 형제단 네트워크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모임의 주 운반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가까운 측근인 누레딘 네바티(전 터키 재무부장관)와 현재 리더로는 대통령의 사위인 베라트 알바이락이 이 모임을 성사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누레딘은 “터키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무슬림 국가들의 연합을 위해 이مام이 되어서 지도하길 제안한다고 하면서 알라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목주 중에 가장 중요한 목주일이 터키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통령 측근들이 이 운동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회의적이거나 비웃어도 문제 되는 것 같지 않다. 놀라운 것은 이슬람의 근본적인 가치와 이들의 생각이 멀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주위 사람들이 충성심에 눈이 멀어 민족주의를 앞세운 극단적인 종교적 열정으로 인해서 그들 생각에서 이성이나 이유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큰 경제 부패와 측근 경제와 인권탄압이 극심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전에 언급한 아드난 탄느르베르디는 SADAT 라는 범군부 단체로서 터키 정보부 MIT의 관대한 도움을 받고 터키 국내 외, 리비아로부터 시리아까지 지하디스트들을 훈련하고 무장시키고 싸우는 일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터키 항공, 바크프, AKP 정당의 도움으로 2018년 11월 ASSAM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서 그는 미국, 유럽, 러시아가 이미 세계 3차 대전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크리스천의 수비대로서 무슬림들을 향해 중

교적인 십자군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국제무슬림연맹(IUMS), 무슬림 형제단과 연결된 조직, 시리아에 자살 폭탄을 허가한 유수프 알-카라다위(YUSUF AL-Qaradawi)가 이 모임에 파트너로 참석했다. 알리 무히딘 카라 다기는 유수프 알-카라다위의 제자로서 터키에 정착하면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의 모임들에 참석한다. 그는 터키가 무슬림 나라들을 선두에서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지하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학교 교육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꾸고 있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추켜 세웠다. 이 모임의 상징성은 무슬림 형제단과 터키 종교국이 같은 동역 관계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무슬림들을 서로 공격하는 것을 터키가 빨리 도와 주어야 하고 사우디를 겨냥해서 공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터키를 추켜 세우며 얘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자문 위원들은 계속해서 2023년까지 매년 터키의 공화국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 칼리프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아드난 탄느르베르디는 2017년에 무슬림 국가들에 공동시장과 경제를 포함하는 통치구조원리를 이미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 그것들을 방어 산업으로 발전 시킬 의제를 가지고 2021년에 그것을 정책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그 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그에 맞는 사법제도와 관습법을 만들 예정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꿈은 자리만 지키고 공식석상에서 인사만 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원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터키 전역에 확대되어 교육에서부터 사회적인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모든 기관들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크프를 권장해(코란에서 권장한다고 하며) 다른 나라에(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도움을 보내자고 호소하고 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 지의 콘 콜린은 “유럽의 병자로 지칭되던 어떤 국가(오스만제국)가 동방의 성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터키가 또 다른 파키스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이 극단주의적 이슬람주의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가자 지구에 터키 합정을 보냈던 사건은 서방의 국가들을 크게 근심시키고 있다, 2010년 6월 2일)고 말했다.

기도할 때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분별하며 기도해야한다. 터키에 2007년 7월에 일어난 에르게니콘, 2013년 부터 시작된 FETO... 또 어떤 이름들을 지어낼지... 터키 국민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TV의 뉴스를 통해 전해 듣는다. 몸된 교회가 분별하는 영이 부여하기를 기도할 때다.

앞에서 언급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을지, 사우디와 다른 중동 국가와

어떤 관계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지, 기도해야 할 때이다. 걸프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많은 돈으로 온 세계에 구제금을 주어서 그들의 종교심을 들어 내고 싶어한다. 특별히 사우디의 올라마와 와하비즘의 극단주의 이슬람과 왕가들이 풀어나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때이다. 걸프 나라들 외, 중동 국가들은 리더를 구심점으로 계획하고 구성하고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애국심이 터키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또 중동의 많은 아랍 나라들은 그 인구 구성이 난민과 경제 노동 인구로 그 대다수를 이루거나(사우디, 요르단, 걸프 나라들),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예멘). 터키 국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세뇌 시키는 방송들을 뿜어 낼 때 분별의 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아랍 연합 국가를 형성하면서 인기가 올라 가고 있었을 때, 요르단, 시리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좋은 것이 이스라엘 이슈이고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것이다. 터키가 그 자리에 서지 않길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지만 영적인 면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영적인 눈을 들어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힘이 커지면 늘 욕심이 생긴다. 터키가 목표하고 있는 2023년이 멀지 않다. 이슬람적인 성향이 강해질수록, 코란에서 추구하는 세계관도 강해진다. 중동 나라에서 흔한 Infidel(이교도)라는 단어가 터키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터키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 나라이다. 곳곳에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커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진리를 찾을 때 만남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 인터넷 채팅, 라디오, 유튜브 채널, 텔레비전 등등.. 터키를 하나님께서 전세계의 이목을 받게 하신다. 기도하라는 뜻 일 것이다.

장기사역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단기팀이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지혜롭게 성경을 배포하고, 힘을 모아 터키와 중동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난 대규모의 터키 여행객들을 보면서 막내 아들 일리아스와 딸은 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드는 생각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터키를 위해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동의 영적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연합이 그 열쇠다. 사단의 회가 있는 이곳에 혼자 그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그 불 속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 개척자들이 겪어야 하는 영적 소진과 그 힘을 누가 도와 줄 것인가?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다. 터키에 교회가 심어지고 태어나기 까지 우리는 그 산파의 역할을 해야한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깨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터키와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스가랴 12:2-3 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권면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슌 12:2-3)



2019 킹덤아웃리치 사역 안내

터키, 이집트 그리고 북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진행되는 교회개척운동과 난민돕기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참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의 추수밭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일정(터키 시간): 2019년 4월 22일(월) - 5월 1일(수)

- 4/21(주일: 부활절) 미국 출발(오후 3시 이후). 한국 출발(4/22 오전)
- 4/22(월) 이스탄불 도착 및 오리엔테이션
- 4/23(화) 뷰육아다 섬 사역
- 4/24(수) - 29(월) 킹덤아웃리치 사역(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 등)
- 4/30(화) 비전나눔 및 연합기도회
- 5/1(수) 귀국(각 자의 사역지로)

(현지 사정에 따라 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 (마 9:37 - 38)